

‘신기의 퍼트’ 42세 박상현, KPGA 정상 우뚝

동아회원권그룹 오픈 우승...제네시스 챔피언십 이후 1년 10개월만 무려 21언더파로 통산 13번째 우승...통산 상금 60억원 돌파 눈앞

나이를 잊은 박상현(42)이 신기의 퍼트를 앞세워 2년여 만에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대회 정상에 다시 올랐다.

박상현은 31일 경기도 광주시 강남300 컨트리클럽(파70)에서 열린 KPGA 투어 동아회원권그룹 오픈(총상금 7억원)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4개에 보기 2개를 곁들이며 2언더파 68타를 쳐 최종 합계 21언더파 259타로 정상에 올랐다.

통산 13번째이자 이번 시즌 첫 우승이다.

KPGA 투어에서 박상현보다 더 많이 우승한 선수는 최상호(43승), 박남신(20승), 한장상(19승), 최광주(17승), 최광수(15승) 5명뿐이다.

박상현은 2023년 제네시스 챔피언십 제패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우승 트로피를 보았다.

당시 40세이던 박상현은 40살 넘어서 벌써 두 번 우승했다.

체력과 근력의 중요성이 커진 현대 골프에서 40세를 넘기고도 경쟁력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올해 KPGA 투어에서 40대 우승자는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 챔피언 손 노리스(43·남아프리카공

화국)에 이어 박상현이 두 번째다.

우승 상금 1억4000만원을 받은 박상현은 통산 상금을 56억5735만원으로 늘렸다.

KPGA 투어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유일하게 통산 상금 50억원을 넘긴 박상현은 이번 시즌에 사상 최초로 통산 상금 60억원 돌파도 바라보게 됐다.

박상현이 적어낸 259타는 2017년 티업·시스윙 메가 오픈에서 장이근이 세운 KPGA 투어 72홀 최소타 기록(260타)을 1타 넘어섰지만, 이번 대회는 젖은 페어웨이에서 볼을 집어 올려서 닦은 뒤 다시 원래 있던 자리 1클럽 이내에 내려놓고 치는 프리퍼드 라인을 적용한 탓에 공식 기록으로 인정받지는 못했다.

3라운드까지 버디 22개를 잡아내며 5타 차 선두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박상현은 샷이 조금씩 흔들렸다.

박상현은 6번 홀(파4)에서 티샷을 왼쪽 언덕 아래로 보낸 탓에 이날 첫 보기를 적어내고도 6타차 선두를 달렸다. 하지만 박상현은 8번 홀(파4)에서 티샷을 또 왼쪽 언덕으로 날렸고 두 번째 샷은 뒤땅

을 쳤다.

박상현에게는 퍼터가 있었다. 그는 11m 퍼퍼트를 집어넣었다.

박상현은 9번 홀(파5)에서 세 번째 샷을 1m 옆에 떨어뜨려 합승을 돌렸으나 10번 홀(파4)에서 3퍼트 보기를 적어내는 실수를 저질렀다.

완벽에 가까운 경기를 펼쳤던 1~3라운드와 달리 박상현이 흔들리는 틈에 이태훈이 맹추격에 나섰다. 지난 4월 우리금융 챔피언십에서 우승했던 이태훈은 9번 홀(파5) 이글에 이어 12, 13번 홀 연속 버디로 3타차까지 좁혀왔다.

박상현은 또 한 번 퍼터로 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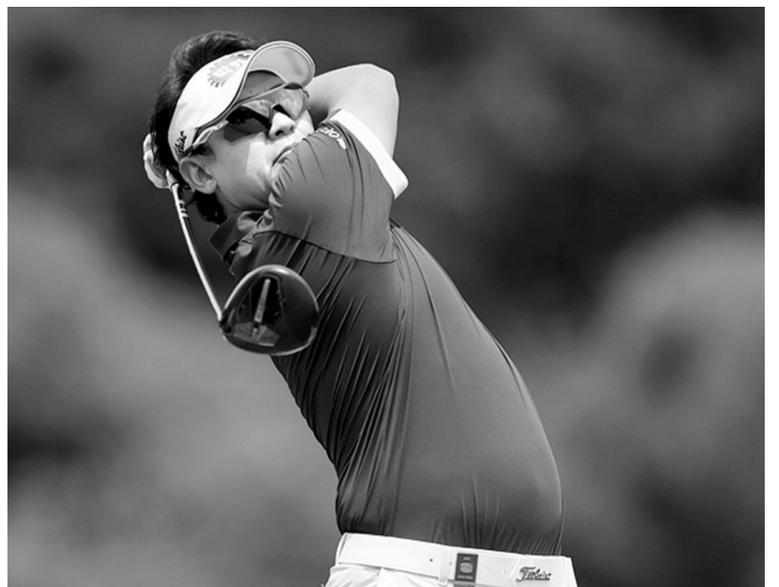
12번 홀(파3) 티샷이 프린지에 떨어졌고, 6m 거리에서 퍼터로 굴린 볼을 홀에 집어넣고 또 한 번 포효했다.

이태훈은 16번 홀(파3) 버디에 이어 18번 홀(파5)에서도 1타를 줄였지만 거기까지였다.

박상현은 14번 홀부터 18번 홀까지 6개 홀을 차분하게 파로 막아내고 2타 차 우승을 완성했다.

이날 이글 1개와 버디 7개를 쓸어담아 9타를 줄인 이태훈은 2위(19언더파 261타)에 만족해야 했다.

5언더파 65타를 친 최승빈과 3타를 줄인 송민혁이 공동 3위(16언더파 264타)를 차지했다.



31일 경기도 광주시 강남300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KPGA 투어 동아회원권그룹 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박상현이 티샷을 하고 있다. <KPGA 제공>

‘도로 타고 데굴데굴’ 408m 티샷...신다인, KG 레이디스 오픈 우승

KLPGA 생애 첫 정상

프로 통산 정규투어에서 단 한 번도 톱10에 들지 못했던 신다인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KG 레이디스 오픈(총상금 10억원)에서 ‘하늘의 도움’으로 생애 첫 우승을 거뒀다.

신다인은 31일 경기도 용인 씨네포인트 컨트리클럽(파72·6826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3라운드에서 2차 연장 끝에 유현조를 꺾고 우승 트로피를 들었다.

2라운드까지 2위 고지원에게 3타 차 단독 선두를 달린 신다인은 3라운드에서 주춤했다.

버디 3개, 보기 2개를 합해 1언더파 71타에 그치면서 최종 합계 12언더파 204타로 경기를 마쳤다.

신다인이 부진한 사이 한빛나와 유현조는 무서운 뒷심으로 추격해 동타를 기록했다.

신다인은 한빛나, 유현조와 경쟁한 18번 홀(파5) 1차 연장에서 ‘하늘의 도움’을 받았다.

티샷이 우측으로 휘면서 카트 도로 아스팔트에 떨어졌으나 공이 통통 튀며 쉽게 굴러갔다.

리프와 도로를 오가며 데굴데굴 굴러간 공은 다시 리프 안으로 쏙 들어가면서, 티샷 비거리는 무려 407.9m를 기록했다.



31일 경기도 용인 씨네포인트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제14회 KG 레이디스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한 신다인이 우승컵에 입을 맞추고 있다. <KLPGA 제공>

두 번째 샷으로 공을 홀 2.2m 옆에 붙인 신다인은 버디로 홀아웃했다.

한빛나는 파를 기록하면서 탈락했고, 유현조는 버디에 성공해 2차 연장에 들어갔다.

신다인은 우승 기회를 놓치는 듯했으나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2차 연장에서 5.5m 버디 퍼트에 성공했고, 유현조가 4.7m 버디 퍼트에 실패하면서 경기에 마침표를 찍었다.

신다인은 우승 상금 1억8000만원과 3700만원 상당의 액티언 HEV 차량, 씨네포인트 컨트리클럽 1년 무료 라운드 이용권을 받았다.

2020년 7월에 입회한 2001년생 신다인은 그동안 정규투어에서 상위 10위 안에 든 적이 없었다.

본격적으로 정규투어에 뛰어들어 지난해 26개 대회 중 17개 대회에서 컷 탈락했고, 최고 순위는 공동 22위였다.

올해에도 18개 대회 중 9개 대회에서 컷 통과에 실패했다. 최고 순위는 공동 14위다.

그러나 신다인은 이번 대회 1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로 공동 2위에 오른 뒤 2라운드에서도 6언더파 66타로 선전하면서 단독 선두로 뛰어올랐다.

그리고 마지막 3라운드에서 보기 드문 명장면을 연출하며 우승했다.

유지나와 조혜림, 임진영은 최종 합계 11언더파 205타로 공동 4위에, 박민지와 최예은은 각각 10언더파 206타로 공동 7위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남부대국제수영장에서 진행된 온가족세계스포츠교실 수영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수료식을 갖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광주시체육회 “온가족 함께 스포츠 즐겨요”

가을 스포츠교실 참가자 모집

광주시체육회가 ‘2025 온가족세계스포츠교실’ 가을철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프로그램은 펜싱과 파크골프로 서구 국제펜싱장과 첨단체육공원 파크골프장에서 강습이 이뤄진다.

펜싱은 초등학교 1~3학년, 파크골프는 만 60세~65세 미만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각각 20명을 모집하며, 총 10회에 걸쳐 강습이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오는 2일까지 네이버 폼을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체육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한편 시체육회는 지난 7월부터 ‘2025 온가족세계스포츠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7월 한 달 여름철 프로그램으로 염주실내수영장과 남부대국제수영장에서 수영 종목을 진행했고, 29명의 유·청소년이 수료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시작한 여름철 수영 스포츠교실에서는 부모가 함께하는 ‘물과 친해지기’, ‘정서 안정을 통한 신체 발달’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시체육회는 가을에는 온 가족이 단합할 수 있는 캠프를 실시하고, 겨울에는 빙상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金 13개’ 사격 대표팀, 아시아선수권 메달 57개 수확

한국 사격 대표팀이 제16회 아시아사격선수권 대회를 마무리하고 3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대회 마지막 날인 지난 29일(현지시간) 50m 소총복사 여자 일반부 개인전에서 임하나(화성시청)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한 임하나의 이은서(서산시청), 김재희(화성시청)와 호흡을 맞춘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대회 2관왕에 올랐다.

50m 소총복사 여자 주니어부에서는 오세희(충북보건과학대)가 개인전과 단체전을 제패하고 2관왕에 올랐다.

50m 소총3자세에서도 은메달 2개를 땀던 오세희는 이번 대회에서만 메달 4개를 수확했다.

25m 권총 남자 주니어부에서는 이시우(한국체

대), 이원재(인천대), 문대희(유원대)가 단체전 동메달, 센터파이어권총 남자 개인전에서는 이재균(KB국민은행)이 은메달을 차지했다.

28개국 734명이 출전해 아시아 최대 규모였던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금메달 13개, 은메달 21개, 동메달 23개를 합쳐 57개의 메달을 땀다.

권총과 소총, 산탄총, 무빙타겟 등 모든 종목에서 고르게 성과를 냈고, 일반부(국가대표)와 주니어부(후보선수), 유스부(청소년대표) 전 연령대에서 메달을 획득해 경쟁력을 뽐냈다.

이번 대회 특히 주목할만한 성과는 차세대 선수의 활약이다.

김호빈(남부대)은 개인 자격으로 참가해 10m 공기소총 여자 주니어부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한국 선수단 첫 개인전 금메달을 책임졌다.

권용우(한국체대)는 25m 속사권총 개인전 금메달, 손건우(한국체대)는 속사권총과 권총에서 각각 메달을 땀다.

대한사격연맹은 2026 아이치·나코야 아시안게임을 1년여 앞두고 열린 이번 대회에서 고르게 성적을 거둔 점을 최대 성과로 꼽았다.

장갑석 대표팀 총감독은 “2026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한 최고의 점점 무대였고, 좋은 경험을 했다”면서 “모든 종목과 연령대에서 고르게 성과를 거둬 한국 사격의 종합적인 경쟁력을 확인했다”고 자평했다.

또 “57개의 메달은 한국 사격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지표로 고무적이다. 올해 11월 카이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재점검해 내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외인천하’ PBA, 국내파 자존심 회복 나선다

4차 투어서 첫 우승 도전

프로당구남자 국내파 선수들이 2025-26시즌 4차 투어에서 자존심 회복을 노린다.

개막 이후 세 차례 대회에서 외국인 선수들에게만 우승컵을 내준 가운데, 이번 대회에서 첫 정상에 도전한다.

고양 킥박스 PBA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SY 베리테움 PBA-LPBA 챔피언십’에서 국내 강호 조재호(NH농협카드)는 오는 2일 128강에서 윤

균호를 만난다. 같은 날 최정원(휴온스)은 이선웅과 맞대결을 벌인다.

9월 3일에는 강동궁(SK렌터카)과 김준태(하림)가 각각 최을, 한동우와 격돌한다.

젊은 피들의 도전도 이어진다.

‘PBA 신성’ 김영원(하림)은 3일 황재원과 맞붙고, 3차 투어(NH농협카드 챌리티 챔피언십) 준우승자 엄상필(우리금융캐피탈)은 같은 날 장대현과 경기를 치른다. 이충복(하이원리조트)은 2일 김성민과 128강에 나선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전시지원 공모전시
광주·전남수채화협회 : 빛이 흐른다

일시 : 2025-08-14(목) ~ 2025-09-14(일)
공연 있는날 10:30 ~ 19:30
공연 없는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제7회 GAC 공연예술축제 그리제 광주시립교향악단 398회 정기연주회
‘The Echo of Peace’

일시 : 2025-09-12(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41